



2013 **2**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38호

발행 : 우용태 010-9301-2223 / 총무 : 김석백 011-488-9871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퇴임사

아쉬움만 남기고...

태강 / 김성규

동문 여러분, 지난 2012년 한 해 마고21기 본부동창회장을 맡았던 임기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작년 3월, 졸업50주년을 맞이하여 은사님초청행사를 시작으로 2년 전부터 준비한 졸업50주년기념 제주도여행 행사까지 아무런 탈 없이 잘 치르고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과, 지난 가을 안병근 동창의 큰 협찬으로 경북 청송에 있는 명산 주왕산으로 가을단풍놀이를 신명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미흡한 저를 믿고 힘을 실어준 덕분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연말에는 박필근, 김정수 동창의 도움으로 푸짐하고 풍성한 송년회도 가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동문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벅찼던 동창회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미흡하나마 다 할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그 무거웠던 짐을 두 어깨에서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어 그동안 미루어왔던 산신령으로 돌아가 풀어진 심신을 단련하여 동창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볼까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보살펴주신 배종길 50주년행사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용운 전회장과 부산·서울지구임원들, 특히 함께 총대를 댔던 총무 김용인 동문과 그 외의 많은 분들께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 우용태 동문에게도 지속적인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렬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가정에도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SSAM GI 배상

2013년도 본부동창회 회장단

회 장	우 용 태	010-9301-2223
부 회 장	지 해 경	010-8208-6363
총 무	김 석 백	011-488-9871
감 사	김 성 규	010-5577-6636
	이 중 섭	010-5687-8816

Foto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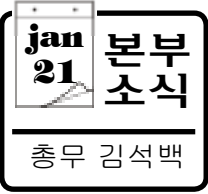


月留亭

월류정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 금강상류 초강천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월류봉 아래에 있다.

달이 월류봉 능선을 따라 강물처럼 흐르듯 사라지는 모습에 반한 우암 송시열이 이곳에 한천정사를 짓고 아침마다 월류봉 중턱 샘까지 오르내렸다는 한천팔경 중 으뜸되는 곳이다.

블로그에서 월류정 보기 : <http://wing91.tistory.com/3287>



이 날은 가랑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본부동창회 정기총회와 결산보고 및 임원개선이 있는 날이라 41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월례회장을 짝 메웠다.

오리고기 안주에 주류 겸 저녁식사를 끝낸 후 김성규 회장의 간단한 인사 후 조정웅 동문의 감사보고에서 김홍사 경조비를 회칙에 의거 원칙대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지적사항을 끝으로 감사보고를 마쳤다.

임원개선에서 전년도 부회장인 우용태 동문이 자동승계 회장이 되고 회장권한의 추천으로 김석백 동문이 총무로 임명되었다. 부회장으로는 단독출마에 의거 큰 박수 속에 지해경동문이 선임되는 것으로 신임회장단이 확정되었다.

이날 배종길 동문은 전임회장단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회장단의 건투를 비는 뜻으로 당일 월례회 경비일체를 부담하여 참석동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필근 동문이 우용태 신임회장에게 취임축하로 난을 증정하는 것으로 1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친다. 사전에 2부 행사계획 없이 신임회장단 외 8명이 배종길 동문에게 식대부담의 답례로 김기현 동문이 평소 잘 아는 오동동 부마노래주점으로 안내하였다. 배동문의 ‘울고 넘는 박달재’를 시작으로 술 먹다가 노래하다가 22:00경까지 쌓인 회포를 풀었으며, 신임부회장 지해경 동문의 거금신고식 완불로 내일을 기약하며 기분 좋게 헤어진다.

참석자

강동균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석백 김성규 김순택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채열 김태욱 박소학 배종길 변재국 변중일 손인창 손기홍 신창한
 여경현 우용태 이무일 이대우 이성환 이아인 이중량 장영의 장정치 전기용 정안정
 장의건 정정웅 정창봉 정종필 제갈선광 조정웅 지해경 황희생 이상 41명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3년 1월		
수		입	지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100,000	김순철	식대		협찬자치불
			회보	210,000	회보, 봉투인쇄비
				57,950	회보발송비
			기타	30,000	정기총회유인물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100,000		지출계	447,950	
전월이월	5,494,917		차기이월	5,146,967	
합 계	5,594,917		합 계	5,594,917	

동문동정

- ❖ 구해룡 동문**
 부산치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여 2008년4월 개원한 동문의 자제가 치의학박사 학위를 오는 2월22일 수여받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초빙되어있는 구리모 원장의 박사학위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김기현 동문**
 동문의 부친께서 지난달 26일 천수를 다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내서 큰사랑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많은 동문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 ❖ 노광수 동문**
 동문의 새 주소입니다.
 경남 창원군 대합면 주매리 377번지
- ❖ 박기천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692 보원(아)102-803 (우)448-761
- ❖ 이황구 동문**
 동문의 수목화 ‘고향’에 대한 감상문이 월간 <좋은만남> 12월호에 실렸습니다.
 계속 좋은 작품 보여주기 바랍니다.

- ❖ 제정택 동문**
 동문의 새 휴대폰번호입니다.
 010-3294-9653
- ❖ 조영민 동문**
 동문의 장인께서 지난 1월20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 ❖ 주유삼 동문**
 동문의 새 주소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17-807 (우)100-754
- ❖ 황동철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9-5 (우) 641-838



· 임플란트 · 치아성형 · 치아미백 · 심미보철
 · 구강외과 · 잇몸질환 · 레이저치료 · 충치, 신경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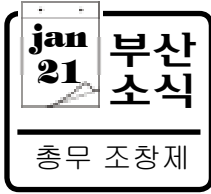
리 모 치 과

원장 치의학박사 구리모(구해룡의 아들)

055-346-7528

김해 진영읍 진영리 1626-4 경남빌딩 401호

본산공단
 ● 자이아파트
 ● 신한은행 진영지점
 ● 소방서
 ● 리모치과 경남은행4층
 ● 밀양
 ● 마산, 창원
 ● 부산, 김해
 진영구시가지



지난 21일, 양정시장 입구에 있는 자연횃집에서 마고21기 부산동창회의 계사년 신년모임을 조촐하게 가졌다. 이날따라 비가 내리는 통에 많은 동문이 참석하지 못하여 조금은 아쉬운 분위기가 들긴했으나 그런대로 새로운 한해를 맞는 의미 있는 신년회였다.

참석자
 김성광 김수용 김지남 김준태 김형래 남원일 문호기 박종주 박진형
 송길영 이강복 이의승 이장우 이황구 정현경 천성태 최진화 조창제
 이상 18명

제3회 315열사추모예술제

2013년 2월 15일~3월 5일

제3회 315열사추모예술제

(315의거 김용실·김용준열사 추모행사)

주최: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주관: 315의거 두분 열사 추모회(315사추회)

후원: 315의거기념사업회, 창원상공회의소, 경남대학교

<p>행사 1 창원상공회의소 작가그림전 주제: 깊은 풍경 3인작가: 목경수, 윤영수, 손명숙 기간: 2013년 2월 15일~3월 5일 장소: 창원상공회의소 챔버갤러리 개막식: 2월 15일 저녁 6시</p>	<p>행사 3 경남대학교 초청 인문예술강연 및 시연 주제: 판소리와 플라멩코의 표현주의적 요소 발제: 김준형 시연: 판소리 김윤희, 플라멩코 이해정 날짜: 2013. 3. 20 오전 11시~12:20 장소: 경남대학교 한마미래관 1층 시청각실</p>
<p>행사 2 전야제 창동거리parade 주제: 3월20일 추모공연 홍보를 위해 날짜: 2013. 3. 19 오후6시 전후 장소: 창동예술촌 광장</p>	<p>행사 4 추모공연 주제: 판소리와 플라멩코 날짜: 2013년 3월 20일 오후 7시 장소: 마산 315아트센터 소극장</p>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그림말결기〉 ‘고향’

이황구 (李晃久) 화백의 호는 남연(南淵)으로, 1942년 10월 8일 일본 나고야시에서 출생하여 조국이 해방되던 1945년에 경남 함안군 가야면 가야리 가야제에 귀국하여 큰댁에서 살았다.

화백의 집안은 전통적인 한학자 집안이었으며, 어려서부터 예술적 감각이 특출한 신동이라고 불리었으며, 영남 서예계에서 청남 오제봉 이후 가장 뛰어난 서도가이기도 한 이황구 화백의 **고향**이란 작품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이랑 손잡고 큰집을 가던 마음의 이미지와 필묵을



구사하여 자신이 느낀 자연 속에 간직되어 있는 정취를 필묵만으로 표현한 71세란 노령답지 않은 강한 필치와 화면의 처리가 완숙한 작품이다.

고향은 전통회화의 주요한 장르로서 산과 강 등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자연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노장사상에 바탕을 둔 자연관을 토대로 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일정한 초점에 서서 자연이

나 물상(物象)의 윤곽이나 전경을 투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상의 어느 시각에서도 다원적(多元的)으로 투시함으로써 대상의 상하좌우, 내외면(內外面) 심지어는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 성정(性精)의 변화까지를 한 화면에 표출한 작품이다.

눈 덮인 조용한 시골길의 포근함과 은은한 설렘이 담겨 있으며, 이황구 화백의 산수화 기량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기도 하다.

수묵으로만의 특유의 필묵(筆墨)의 운용으로 한국 근대기 실경(實景)을 근간으로 하는 산수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먼 산에서 구불구불하게 갈지(之)자 모양으로 곡절(曲折)로 변화를 주어 작품상에 균등

을 깨고 감동의 시각효과를 더하고 있으며, 개울을 중심으로 한 대각구도여서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근경과 원경에 보이는 눈 덮인 풍경을 굳이 칠을 하지 않음에도, 화폭의 구성만으로 잘 묘사하고 있으며, 다리 아래로 살짝 얼어붙은 살얼음 밑의 물의 흐림의 묘사까지 감각적인 필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기수

온라인 가치미술(아트밸류)대표

산길을 오르고 내리며 돌밭길을 지나면 키 작은 산죽과 어우러진 숲길이 이어지고 돌아들면 길 앞쪽에 큰 석탑과 미륵존불이 위엄을 자랑하고 서있으며 왼편 계단 저 위로는 해인사 길상암이 자리를 잡았다. 이 거대한 석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34과를 모신 불광보탑이라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미륵존불 뒤로는 삼천불조 53불이 미륵존불을 옹위하고 있다.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모아 경배를 하고 있으니 빌 소원도 없는 나는 멧쩍게 손을 모아 보기는 했으나 어쩐지 손해 보는 느낌만 들더라.....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길을 잡으면 공교롭게도 9. 마음전하기 길이 이어져 혹시 미륵존불님께 마음이 들리지 않았을까 살짝 후회스럽다. 그러나 그 마음도 잠시 이제부터는 주변 경관에 눈이 빠져 눈길이 쉴 틈이 없다. 나무테크길을 따라 들어 ‘가야19명소 낙화담’(꽃이 떨어지는 소)을 내려다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기가 어렵고 한참이 지나도록 발걸음조차 떨어지지 않는다. 되돌아 나가며 한 번 더 절경을 맘껏 구경하리라 다짐을 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이어지는 나무테크길을 따라 또다시 다리를 건너면 해인사 까지는 1.7km가 남았다고 팻말이 알려주고 산길을 내려서면 ‘가야19명소 침석대’(암석이 쌓여 있는 대)를 만나지만 앞서 너무 장엄한 낙화담을 본 눈에는 그저 작은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몇 발짝 오르면 물레방아를 이용한 「홍류동 간이 발전시설」이 보이고 이내 ‘가야19명소 회선대’(선인이 모여 노는 바위)를 지나 나무테크길과 나무다리를 건너면 테마로드는 이곳에서 끝을 알려준다.

여기서 해인사까지는 1km남짓 되지만 어둡기 전에 산길을 내려야 하는 조금한 마음이 해인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낙화담을 한 번 더 구경하기 위해 지체 없이 발길을 돌린다. 아 아! 낙화담!!

과연 돌레길 중에 최고의 코스임에는 틀림이 없다. *

웃짜코너

당신이 만약 여자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 냉장고 같은 남자 ☞ 체구에 비해 기능이 단순하다.
2. 다리미 같은 남자 ☞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
3. 커피포트 같은 남자 ☞ 성능이 좋으면 2분이면 끝난다.
4. 전자레인지 같은 남자 ☞ 남의 사정은 모르고 속부터 태워.
5. 식기세척기 같은 남자 ☞ 정작 오목한 그릇은 제대로 못 닦는다.
6. 세탁기 같은 남자 ☞ 눌러만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알아서 한다.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누구라도 칭찬 한마디씩 하라고 하지만 이 꼴을 보고나니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 긴 출렁다리를 건너면 해인사 일주문이 반기고 또다시 ‘가야19명소 흥류동’(수석과 산림이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기다리고 있다. 말만 듣던 흥류동이라 과연 어떤 경관이 눈요기를 시켜줄

소리길 - 해인사 (2)
장정치

까 마음이 조금해 진다. 나무테크길을 따라 아취교를 건너면 다시 ‘가야19명소 농산정’(최치원이 가야산에 들어와 수도한 곳)이 기다리는데 보슬비가 내리는 날씨가 질퍽한 흙길이 농산정을 더럽히고 있으니 최치원의 고고한 자태는 느껴볼 수가 없다.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짝을 이루어 사진을 찍어대느라 흠발로 난간에 올라서고 야단이 법석을 떨고 있으니 마음마저 아프기만 하여 얼른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

이어진 길은 그 마음을 달래기나 하는 듯 ‘가야19명소 취적봉, 음풍뢰’(선인이 내려와 피리를 불던 바위 / 풍월을 읊는 여울)가 계곡 건너 바위와 조화를 이루며 절경을 선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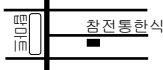
연이어 ‘가야19명소 자필암’(선선이 붓을 간주려 글을 적은 바위)에는 계곡이 저 아래라 아무리 찾아봐도 글씨를 볼 수가 없다. 섭섭한 마음을 등에 지고 ‘가야19명소 분옥포’(옥을 뿜듯이 쏟아지는 폭포)에 당도하니 이곳은 이름에도 걸맞지 않는, 폭포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민망한 1m남짓한 폭포라 실망만 안겨 주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가파른 길을 오르고 내려 다리를 건너면 ‘가야19명소 제월담’(달빛이 잠겨있는 연못)에 닿지만 이제는 기대를 버리고 건성으로 주변 경관을 훑어보며 쓴살같이 내달리니 어느새 7. 미소길로 들어선다.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그저 웃으며 살아보라는 암시인 것 같아 내키지 않는 헛웃음이나마 지어 본다.

7쪽으로 이어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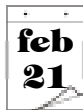
2013년 2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목) 오후 6시00분
장소 : 참전통한식(222-5669)



오동동 탐마트 앞길
쌍용복집 뒷길



부인회

일시 : 21일(목)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223-6160)

